

전남매일

“전남체육인재 양성 힘 보탬 것”

서정복 전남축구협회장 ‘장학기금’ 1,600만원 기탁

전남축구협회(회장 서정복)가 체육장학기금을 기탁했다.

이에 따라 전남 체육인재 양성의 큰 힘이 될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모금이 다시한번 불붙을 전망이다.

전남도체육회(사무처장 박내영) 및 전남축구협회(회장 서정복)에 따르면 전남축구협회는 지난 30일 도체육회 제247차 이사회서 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1,600만원을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서 서정복 회장은 회의를 주재한 배용태 행정부지사에 게 기탁금을 전달했다.

전남축구협회의 기탁으로 전남 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은 7월말 현재 12억 8,845만원이 적립되게 됐다.

앞서, 전남축구협회는 이번 1,600만원의 장학금을 포함 총



5,080만원의 장학금을 출연했다.

서정복 회장과 축구선수 기성용(영국프로축구 스완지시티), 김영광(울산 현대)이 각각 1,000만원을 기탁한 것을 비롯, 손영대 전무이사, 신정식 부회장이 각각 150만원, 박국창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가 50만원, 그리고 임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130만원 등이다.

서 회장은 지난 2008~2012년 도체육회 사무처장 재직시 장학기금 조성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었다.

서 회장은 “지난 5월 전남축구협회 이사회서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에 힘을 보태자고 의결한 뒤 6~7월 임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1,600만원을 모았다”며 “전남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은 경기력이 뛰어나고,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선수에게 쓰이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모금활동에 나섰고, 지난 3년동안 227명의 선수(초 30만원, 중 50만원, 고 70만원, 대 100만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고광민 기자

남도일보

전남축구협, 인재육성장학금 1천600만원 기탁

총 5천여만원 출연으로 축구선수 10명에 혜택

전남축구협회(회장 서정복·사진)가 전남 체육인재 양성에 큰 힘을 보태 넣었다.

전남도체육회(사무처장 박내영)는 지난달 30일 전남도체육회 제247차 이사회에서 최근 축구인들이 정성껏 모금한 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1천600만원을 전남축구협회가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 서정복 전남축구협회장(전남체육회 부회장)은 회의를 주재한 배용태 행정부지사에게 기탁금을 전달했다.

지난해부터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추가 조성은 제자리 걸음에 멈춰 있었지만 전남축구협회의 기탁으로 전남체육의 미래를 위한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모금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남축구협회의 기탁으로 전남 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은 7월말 현재 12억 8천845만원이 적립되게 됐다.

전남축구협회는 이번 1천600만원의 장학금을 포함해 총 5천080만원의 장학금을 출연했다.

전남축구협회가 내놓은 장학금은 서정복 회장과 축구선수 기성용(스완지시티), 김영광(울산 현대)이 각각 1천만원씩을 기탁한 것을 비롯해 손영대 전무이사, 신정식 부회장이 각각 150만원을 박국창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50만원, 그리고 임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130만원 등이다.

이번 장학금 기탁으로 전남축구협회는 지난 2012년 장학생 선정 기준(500만원당 1명 추천 기회 부여)에 의해 10명까지 장학생을 추

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정복 회장은 지난 2008년 1월 8일부터 2012년 1월 7일까지 4년 동안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해 바 있으며 재임기간 동안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

서정복 회장은 “지난 5월 전남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에 힘을 보태자고 의결한 뒤 6~7월 임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1천600만원을 모았다”며 “전남 체육 발전에 일조한 것 같아 더없이 가슴 뿌듯하다”고 말했다.

박내영 신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도 “전남체육의 미래는 우수한 체육 영재의 꾸준한 발굴·육성에 있다. 이에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



기금 조성·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조성액을 꾸준히 확대하여 많은 우수재능 선수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은 지난 2009년부터 모금활동에 나섰고 지난 3년동안 227명의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신광호 기자 sgh@namdonews.com

광주일보

전남축구협, 체육인재 육성 장학기금 1600만원 전달

전남축구협회(회장 서정복·사진)가 지역 체육인재 육성에 큰 힘을 보탬다. 서정복 협회장은 지난 30일 전남도체육회 제247차 이사회에서 축구인들이 정성껏 모은 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1600만원을 배용태 도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

지금까지 전남축구협회가 기탁한 장학금은 서정복 회장과 기성용(영국 프로축구 스완지시티), 김영광(울

산 현대)이 각각 1000만원씩을 기탁한 것을 비롯해 손영대 전무이사, 신정식 부회장이 각각 150만원, 박국창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50만원, 임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130만원 등 총 5080만원에 달한다.

이번 전남축구협회의 기탁에 따라 전남 체육 인재육성 장학기금은 7월 말 현재 12억 8845만원이 적립됐다.

서정복 회장은 “지난 5월 전남축구



협회 이사회에서 전남 체육 인재육성 장학기금 조성에 힘을 보태자고 의결한 뒤 6~7월 임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1600만원을 모았다”며 “미래 전남체육 인재 양성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장학금 조성을 통한 우수선수들의 발굴, 육성에 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남일보

전남축구협 ‘체육장학기금’ 추가 기탁

모금액 1600만원 쾌척

전남축구협회가 전남 체육인재 양성의 큰 힘이 될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을 추가 기탁했다.

전남도체육회(사무처장 박내영)에 따르면 전남축구협회는 지난 30일 열린 전남도체육회 제247차 이사회에서 축구인들이 정성껏 모금한 장학기금 1천600만

원을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남축구협회가 그동안 출연한 장학금은 총 5천여만원으로, 서정복 전남축구협회장(전남체육회 부회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배용태 행정부지사에게 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남축구협회의 기탁으로 전남 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은 7월말 현재 12억 8천845만원으로 늘어났다.

지자체 1월까지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해 서정복 회장은 “지난 5월 전남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에 힘을 보태자고 의결한 뒤 임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기금을 모았다”며 “전남 체육 발전에 일조한 것 같다 더없이 가슴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은 경기력이 뛰어나고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선수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9년부터 모금활동에 나서 3년동안 227명의 선수에게 전달됐다.

정현아 기자 aura@

남도매일

전남축구협회 '체육장학기금' 또 기탁

모금액 1,600만원 쾌척... 전남체육회 이사회에서 전달
20억원 확대 조성 탄력... 체육인재 양성에 큰힘 기대

전남 체육인재 양성의 큰 힘이 될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모금이 다시한번 불붙을 전망이다.

전라남도체육회(사무처장 박내영) 및 전남축구협회(회장 서정복)에 따르면, 전남축구협회는 지난 30일 전라남도체육회 제247차 이사회에서 최근 축구인들이 정성껏 모금한 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1,600만원을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 서정복 전남축구협회장(전남체육회 부회장)은 회의를 주재한 배용태 행정부지사에게 기탁금을 전달했다.

이로써 전남체육의 미래를 위한 일환으로 조성되고 있는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모금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전라남도체육회는 지난해부터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추가 조성이 제자리 걸음에 머물렀었다.

이날 전남축구협회의 기탁으로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은 7월말 현재 12억 8,845만원이 적립되게 됐다.

특히 전남축구협회는 이번 1,600만원의 장학금을 포함하여 총 5,080만원의 장학금을 출연하게 됐다.

전남축구협회가 내놓은 장학금은 서정복 회장과 축구선수 기성용(영국프로축구 스완지시티), 김영광(울산 현대)이 각각 1,000만원씩을 기탁한 것을 비롯하여 손영대 전무이사과 신정식 부회장이 각각 150만원을, 박국창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50만원, 그리고 임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130만원 등이다.

따라서 전남축구협회는 지난 2012년 장학생 선정 기준(500만원당 1명 추천 기회 부여)에 의



하면, 10명까지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전남축구협회는 2012년에는 7명을 추천한 바 있다.

서정복 회장이 이처럼 어느 경기단체보다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에 앞장선 것은 서정복 회장의 투철한 체육 열정 때문이다.

지난 2008년 1월 8일부터 2012년 1월 7일까지 4년동안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 바 있는 서정복 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었다.

다시말해 미래 전남체육 인재양성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장학금 조성을 통한 많은 장학 혜택을 주는 등 우수선수들의 발굴, 육성에 있다는 강한 신념이 밑바탕됐다.

서정복 회장은 "지난 5월 전남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에 힘을 보태자고 의결한 뒤 6~7월 임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1,600만원을 모았다"며 "전남체육 발전에 일조한 것 같다 더없이 가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와같이 서정복 회장이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에 불을 붙이자 전라남도체육회 역시 다시한번 모금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각오를 다져내고 있다.

30일 취임한 박내영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도 "전남체육의 미래는 우수한 체육 영재의 꾸준한 발굴·육성에 있으며, 이에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조성액을 꾸준히 확대하여 많은 우수재능 선수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은 경기력이 뛰어나고,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선수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전남체육 진흥 도모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난 2009년부터 모금활동에 나섰고, 지난 3년동안 227명의 선수(초 30만원, 중 50만원, 고 70만원, 대 100만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최종경 기자